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호 【루계 제2102호】

주체100(2011). 1
15
토요일
음력 12. 12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새로 건설된 남포유리병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새로 건설된 남포유리병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공장에 도착하시자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진군을 진두지휘하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새로운 승리에로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흠모의 마음을 담아 가장 뜨거운 새해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영접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신 다음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정초부터 련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로동자들을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연혁소개실과 제품진렬실, 통합생산조종실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기술장비 및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고도로 자동화된 유리병생산설비들이 늘어선 작업장들에서 쉬임없이 흘러나오는 각종 유리병들을 보시면서 우리의 설비,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현대적인 유리병공장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건설하고 대량생산에 들어간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장의 로동계급과 건설자, 지원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남포유리병공장은 원료의 투입으로부터 포장 및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들이 자동흐름선으로 일체화된 첨단수준의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재부가 마련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남포유리병공장은 백규석과 장석, 규사를 비롯한 우리 나라에 풍부한 원료를 가지고 각이한 용도의 유리병들을 생산하는 공장인것만큼 생산전망이 대단히 크고 실리있는 유리제품생산기지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늘 유리병문제때문에 마음써오시였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유리병공장을 건설한 결과 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을뿐아니라 포장용기문제와 관련한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풀수 있게 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과 련관단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억척같은 신념을 안고 비상한 애국열의와 창조력을 발휘한 결과 첨단수준의 유리병공장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낼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성과는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 우리 나라 자립적민족공업의 위대한 승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가 후대들에게 물려줄수 있는 가장 귀중한 물질적유산은 대대손손 제땅에서 제힘으로 살아갈수 있는 주체화된 경제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식의 유리병생산기지를 일떠세운 건설자들의 수고를 거듭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번에 남포유리병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 남포시당과 대안친선유리공장 당위원회의 전투력과 첨단수준의 자동제병기를 만들어낸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을 비롯한 련관단위 공장, 기업소들의 기술잠재력이 높이 발휘되였다고 하시면서 유리병에 대한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푸는데서 커다란 공로를 세운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남포유리병공장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존엄높은 선군조선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중대한 국면에 들어섰다고 하시면서 비약과 전진의 영원한 무기인 혁명적대고조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여 총공격전을 과감히 벌림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보도된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조선반도와 북남사이에 조성된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애국결단의 중대제안을 담은 련합성명을 발표하였다.

련합성명에서는 남조선당국을 포함하여 정당, 단체들과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제의하면서 현 사태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만나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해결해나갈것이라는데 대해 천명하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에서 제시된 중대제안이 조선반도긴장을 완화하고 위기에 처한 북남관계를 구원하며 민족의 뉴대를 다시 잇고 평화와 통일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애국애족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인정하면서 이를 온 겨레와 함께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한다.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은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과 전세계의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 파문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있다.

실로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에서 내놓은 중대제안은 조성된 정세의 절박성으로 보나 시대와 민족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내외여론으로 보나 가장 정당하고 시기적절한 애국적용단이다.

북과 남이 다같이 이러한 평화애호적사명감을 가지고 투철한 민족적립장에 선다면 북남사이에 풀지 못할 문제란 없을것이며 지금의 첨예한 국면도 얼마든지 극복하고 민족의 활로를 열어나갈수 있을것이다.

남조선에 현 정권이 들어선이래 한번도 북남사이에 대화다운 대화를 해보지 못한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할 일이다.

우리는 현 남조선당국이 임기 5년을 북남대화없이 헛되이 흘려보내는것을 원치 않는다.

현 남조선당국이 집권 5년을 공백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이 일일천추 고대하는 조국통일의 날을 그만큼 지체시켜 겨레앞에 큰 죄를 짓는것으로 될것이다.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다른 그 누구도 풀어줄수 없으며 당사자인 우리 민족끼리 마주앉아 해결해야 한다.

멀리 떨어진 남들과의 대화에는 적극 나서면서도 지척의 동족과 담을 쌓고있는것은 누가 보나 옳은 처사가 아니다.

만나보지도 않고 《진정성》을 운운하며 여러가지 조건부를 앞세우는것자체가 진정성있는 태도라고 말할수 없다.

북과 남이 마주앉아 속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북남관계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을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이 련합성명으로 천명한 중대제안을 적극 실현하여 하루빨리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립장을 밝힌다.

첫째, 북남당국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것을 공식 제의한다.

당국회담의 급과 장소, 시일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할수 있을것이다.

둘째, 중단된 적십자회담과 금강산관광재개회담, 개성공업지구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재개한다.

회담대표단은 종전대로 하던가 새로 구성할수도 있으며 장소는 개성으로 하고 날자는 1월말 또는 2월 상순으로 할것을 제의한다.

셋째, 대화의 문을 열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로서 페쇄된 판문점북남적십자통로를 다시 열며 개성공업지구의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을 해제할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측 판문점적십자련락대표들이 곧 자기 사업을 시작하게 될것이며 개성공업지구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도 우리측 관계자들을 파견하여 상주시킬것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우리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다.

우리의 대화제안에는 아무런 조건부도 없으며 그 진의를 의심할것도 없다.

남조선당국은 쓸데없는 의구심을 깨끗이 버리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대화제의와 선의의 조치에 적극 화답해나와야 할것이다.

주체100(2011)년 1월 8일
평 양

북측에서 남측에 통지문들을 보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에서 천명된 중대제안과 그 실현을 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에서 밝힌데 따라 실천적조치들을 공식통고하는 통지문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북측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 북측 소장이 10일 남측의 통일부와 남조선적십자사 총재,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 남측 소장앞으로 각각 보내였다.

통지문들은 북남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1월 27일 개성에서, 북남적십자회담을 2월 1일 남측 지역인 문산에서 진행할것을 제의하며 1월 12일부터 판문점적십자련락통로를 다시 열고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정상운영한다고 지적하였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에서 천명된 중대제안과 그 실현을 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에서 밝힌데 따라 공화국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2일 남조선통일부와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단장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보내였다.

통지문들은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회담을 2월 11일 개성에서 가질것을 제의하고 이를 위해 북측 해당 관계자 3명이 나간다는것을 통고하였으며 개성공업지구사업과 관련한 실무회담을 2월 9일 개성에서 진행할것을 제의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지난 10일 남측에 통지한데 따라 북측은 12일부터 판문점적십자련락통로를 다시 열고 정식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동결을 해제하고 상주인원들을 파견하는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남측은 판문점적십자련락통로를 여는데 대해서는 응해나오면서도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데 대해서는 협력차단을 구실로 남측 인원들을 내보내지 않을것이라느니, 따라서 사무소도 운영할수 없고 청사에 전기도 보장할수 없다느니 하는 심히 무성의한 구두통지를 보내여왔다.

이와 관련하여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 북측 소장은 12일 남측 소장에게 통지문을 보내여 북남경제협력사업을 일방적으로 차단시켜놓고 사무소까지 운영하지 않겠다는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데 대해 지적하고 남측이 사무소의 정상운영과 관련한 실천적조치들을 속히 취할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2010년 선군조국의 10대사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기관지 《백두-한나》(인터네트)에 편집국의 명의로 된 글 《2010년 선군조국의 10대사변》이 실리였다. 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

희망찬 새해 2011년이 밝아왔다.

21세기 새로운 10년대의 첫 언덕에서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본다.

격동과 환희로 차넘쳤던 2010년, 선군으로 빛나는 공화국은 세계를 경탄시키는 다계단의 변들로 지난해를 빛나게 장식했다.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민족의 존엄과 공화국의 불패성을 만방에 과시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기관지 《백두-한나》편집국은 우리 해외동포들을 비롯한 온 겨레에게 한없는 민족적자긍심과 찬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더 깊이 심어준 2010년 선군조국의 경이적인 성과들을 특대사변으로 묶어 발표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추대

9월 28일,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성대히 진행된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였다.

주체혁명위업의 전환적국면이 열려지고있는 뜻깊은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수위에 또다시 높이 추대한것은 조국과 민족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의 표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 어버이주석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조국군민의 불변의 의지의 힘있는 과시였다.

《**김정일**총비서의 위상을 만방에 알리는 심원한 당대표자회》

《총비서로 추대되신 **김정일**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선군조국의 특대경사에 해내외동포들모두가 환호했고 인류가 끓었으며 세계언론계가 대서특필했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것은 선군조선과 더불어 우리 겨레가 받아안은 커다란 영광이였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승리와 조국통일, 민족만대번영을 담보하는 일대 정치적사변이였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 경축행사

10월, 공화국에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5돐 경축행사들이 성대히 거행되였다.

그 어떤 침략무력도 모조리 격멸소탕할수 있는 강력한 전쟁억제력과 전술기술적으로 완벽한 전투능력을 갖춘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힘있게 떨치며 진행된 장엄한 열병식!

김일성광장을 누비며 지나가는 무적의 열병대오들과 최신땅크들, 각종 장갑차들, 금시 불을 뿜을것 같은 대구경방사포종대들, 최강의 공격력과 방어력을 다 갖춘 미싸일종합체들의 모습은 공화국혁명무력의 위력과 군사강국의 멸적의 기상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드넓은 광장을 가득 메운 화려한 대경축야회의 춤물결, 꽃물결!

황홀경의 최절정을 이루며 10월의 밤하늘가에 터져오른 희한한 축포!

선군조국의 력사에 빛나게 기록된 이 모든 정치축전은 가장 걸출한 위인의 령도를 받으며 가장 빛나는 로정만을 아로새긴 조선로동당만이 펼칠수 있는 승리와 영광의 장엄한 화폭이였다.

미국을 비롯한 수십개 나라의 수많은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취재하여 전세계에 방영한 10월의 경축행사들은 세상사람들에게 선군으로 필승불패하고 일심단결로 위력한 주체조선의 위용을 각인시키며 지구촌을 뒤흔들었다.

세계를 격동시킨 두차례의 중국비공식방문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난해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중국비공식방문은 중국당과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뜨거운 환대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호금도총서기와 조중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의견들을 나누시고 견해의 일치를 보시였다.

8월의 중국비공식방문의 나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혁명의 발자취가 력력히 어려있고 중국의 로세대혁명가들과 함께 풍찬로숙하시던 동북땅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활력있게 강화발전시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시였다.

조선반도정세가 그 어느때보다도 첨예하고 긴장한 때에 진행하신 비공식방문들인것으로 하여 전세계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장군님의 중국비공식방문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력사의 온갖 풍파와 시련을 이겨낸 조중관계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아무리 바뀌여도 변함없이 강화발전되고있다는것을 내외에 천명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크게 기여한 력사적장정이였다.

상상을 초월하는 강행군현지지도

조국에서는 2010년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소식이 끊임없이 전해졌다.

새해벽두 —30℃의 강추위에 북변의 희천발전소건설장을 또다시 찾아주신 그날로부터 불볕더위가 쏟아지는 삼복철에 이어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의 군사훈련을 보아주신 한해의 마감날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소식으로 끓었다.

최전방에서 최전방으로, 주요공업지구로부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경공업과 농업전선에 대한 현지지도소식으로 날이 밝고 달이 흐른 내 조국이였다.

모진 강추위와 무더위, 폭우와 눈보라를 헤치며 강의한 의지로 온 나라 방방곡곡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을 쉬임없이 걸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건강하신 모습은 조국의 천만군민에게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안겨주었다. 우리 재중조선인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도 장군님의 현지지도소식을 들을 때마다 거룩한 인민의 어버이에 대한 한없는 숭배심으로 가슴 들먹이였다.

세계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선군령장의 불철주야의 현지지도소식과 더불어 내 조국의 위용은 더욱 높이 떨쳐지고 주체경제의 동음과 행복넘친 인민들의 웃음소리는 더 높이 울리였다.

남조선과 세계언론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회수가 《사상최대를 기록》하였다고 특보로 전하면서 《동서남북을 종횡무진하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목표는 강성대국과 민중생활향상》 등으로 격찬했다.

장쾌한 승리의 포성

지난해 공화국에서는 대고조, 대비약의 열풍속에 장쾌한 승리의 포성이 련속 울리였다.

국내 최대야금기지인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비콕스제철법에 의한 주체철생산체계완성!

2.8비날론련합기업소 현대화완료, 주체섬유인 비날론의 대량생산체계확립!

10년이 넘어 걸린다던 희천2호발전소 언제건설 완공단계진입!

고성능형CNC공작기계인 9축선삭가공중심반의 개발!

남흥에서 화학비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는 체계완비!

옹근 한개 군과 맞먹는 부침땅면적을 얻어낸 대계도간석지건설완공!

한두곳의 기적이 아니였고 한두분야의 혁신이 아니였다. 모든 단위가 대고조의 통장훈을 불렀고 모든 분야가 대비약의 테프를 끊었다.

그 무슨 《붕괴설》을 떠들며 우리 조국을 압살해보려고 온갖 제재소동에 매여달리던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의 어리석은 망상은 또다시 물거품되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확고한 전망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는 해로 설정된 지난해 조국인민들의 기쁨넘친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새집들이의 경사로 들끓은 현대적인 아빠트들, 선군시대의 멋쟁이유원지로 일떠선 개선청년공원, 사탕과자폭포가 쏟아져나오는 전국도처의 《삼일포》식특산물종합가공기지들, 사과대풍을 마련한 확장된 대동강과수종합농장,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10만세대 살림집건설, 철갑상어료리며 자라, 뱀장어료리를 비롯한 고급료리를 다 맛볼수 있는 새로 개점한 옥류관의 료리전문식당, 모방직공장, 양말공장, 곡산공장, 식료공장, 방사공장, 직물공장, 화장품공장, 수지일용품공장 등 속속 새 모습을 드러내는 경공업공장들…

《상상이 완전히 뒤집혀졌다. 아시아의 등대, 인류의 리상, 여기는 사회주의조선》

최악의 조건에서도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속에 인류의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가고있는 조국인민들의 밝은 모습은 우리 해외동포들은 물론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게 했다.

주체적인 핵융합반응의 성공

지난해 5월, 조국의 과학연구부문에서 핵융합반응에 성공하였다는 소식이 전파를 타고 온 세계에 울려퍼졌다.

막대한 투자와 최첨단과학기술이 안받침되여야 하고 성공에 이르자면 수십년이 걸려야 하며 실험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데만도 억대의 자금이 든다고 하는 핵융합반응을 100% 자체의 과학기술로 성공, 인류가 리상하는 새 에네르기개발의 돌파구마련, 나라의 최첨단과학기술발전의 새로운 경지개척!

자기 식의 독특한 열핵반응장치가 설계제작되고 핵융합반응과 관련한 기초연구가 종결되였으며 열핵기술을 자체의 힘으로 완성해나갈수 있는 강력한 과학기술력량이 마련되였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의 정신을 혼절케 한 메가톤급충격이였다.

내외의 통신, 방송, 출판물들은 《국산기술과 장치에 의한 핵융합반응의 성공은 첨단과학기술의 면모를 과시하는 일대 사변》, 《핵에네르기개발의 최정상에 올라선 북》 등으로 대서특필하였다.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조중친선

지난해는 조중 두 나라사이의 친선의 정이 더욱 뜨거워진 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회창군에 있는 모택동동지의 아들 모안영의 묘와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묘, 전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를 찾아주시였다. 모안영의 전사 60돐에 즈음하여서도 화환을 보내시여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평양에서는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 기념행사가 뜻깊게 진행되였다.

중국고위군사대표단, 중국인민지원군 로병대표단, 중국인민해방군 문예단 등 중국의 귀빈들, 조선의 당과 국가, 정부의 여러 대표단들이 평양과 베이징을 오가며 친선의 정을 나누었다.

우리 나라에서 창조되여 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극 《홍루몽》이 70여일간 중국의 3만 6 000여리를 이어가며 대성황리에 공연되였다.

평양에서 진행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는 조중친선을 상징하는 장이 새롭게 형상되고 공화국의 예술단에 의해 중국가극 《량산백과 축영대》가 창조되였다.

중국에서 새롭게 창작한 텔레비죤련속극 《모안영》이 조선의 TV로 방영되여 조중친선의 정을 더욱 두터이하였다.

진정 2010년은 조중관계의 영원불멸함을 노래하며 두 나라사이에 아름다운 친선의 무지개가 끝없이 비낀 추억많은 해였다.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

지난해 공화국은 전례없이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시종일관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새해공동사설에서부터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0돐이 되는 올해에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실현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1월말에는 개성,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하였고 3월에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담화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을 하루빨리 재개할데 대한 단호한 립장을 표명하였다.

8월에는 추석을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할것을 제안하여 성과적으로 이루었으며 9월초에는 공화국에 불법침입한 남조선선박 《대승》호를 돌려보내는 동포애적조치도 취하였다.

통일과 분렬, 평화와 전쟁사이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공화국이 취한 조치들과 진지하고 성의있는 노력으로 하여 전쟁이 방지되고 평화가 수호되였으며 자주통일운동은 힘차게 전진하였다. 공화국의 평화애호적이고 애국애족적인 통일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더욱 힘있게 확증되였다.

당당하고 존엄높은 선군외교

지난해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책동은 우심하였다.

미국은 《전략적인내》를 떠들며 정치, 군사, 외교, 경제의 각 방면에 걸친 립체적인 제재공세와 함께 추종세력들까지 끌어들여 어떻게 하나 공화국을 압살해보려고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했다. 미국대통령의 《대북제재행정명령》서명과 반공화국제재대상기관 등의 발표, 《핵태세검토보고서》발표, 미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군사분계선일대에 대한 행각, 미핵항공모함의 조선서해진입, 국제기구를 발동한 무모한 《북인권》소동…

하지만 공화국은 추호도 흔들림없이 당당한 선군외교로 대응했다.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맞서나갈것》,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하게 될것》이라는 강경립장을 단호히 천명했고 공화국령내에 불법침입한 미국인에게 엄격한 판결도 주저없이 내렸다.

11월에는 미국의 과학자들까지 초청하여 초현대식우라니움농축시설을 전격공개했다.

선군외교의 련속되는 강타에 워싱톤이 전률하고 백악관이 뒤흔들리였다.

약육강식의 론리만이 지배하는 국제정치무대에서 당당하고 존엄높은 선군외교로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떨쳐가는 선군조국의 위용은 민족과 인류를 무한히 격동시켰고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을 끝없는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

백두의 선군령장을 높이 모시여 우리 조국은 2010년에도 민족사에 특기할 변들을 다계단으로 터치였다.

재중조선인들을 비롯한 우리 해외동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따라 비약과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내 조국의 모습에서 민족의 창창한 래일을 보고 날을 따라 높아가는 공화국의 위상에서 무한한 민족적존엄과 긍지를 느끼고있다.

*

천하절세의 위인들을 모신 내 조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적적인 사변들을 수놓으며 세계를 놀래우고 인류를 경탄시킬것이다.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상징인 위대한 선군조국이여!

민족의 영광과 긍지를 만방에 떨치라!

언제나 승리의 특대사변만을 아로새기며 무궁토록 번영하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백두-한나》편집국

인민이 덕을 볼 그날을 위하여

정초부터 공화국에서는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애국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공화국의 새해공동사설은 올해가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공격전의 해라고 하면서 경공업을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으로 규정하였다. 공동사설은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해 지적하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인기상품,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며 대중의 다양한 수요와 기호에 맞게 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여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 공화국에는 경공업발전을 뒤받침해주는 힘있는 기간공업이 있고 강력한 과학기술력량이 있으며 겹쌓인 시련속에서 경공업을 상승궤도에 올려세운 귀중한 투쟁경험도 있다.

강성대국의 래일을 확신케 하는 이 모든것은 인민생활향상을 최대의 중대사로, 최고의 투쟁목표로 끌장을 볼 때까지 밀고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보살핌에 의해 마련된것이다.

인민들이 하루빨리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시려는것은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이며 령도자가 고생한것만큼 조국과 인민이 덕을 보게 된다는것이 애국애족의 화신이신 그이의 신조이다.

강성번영의 웅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시려 그이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불철주야의 현지지도는 인민생활대고조의 열풍이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지게 하였다. 평양밀가루가공공장과 회령식료가공공장, 강계기초식품공장, 평양양말공장을 비롯한 도처의 경공업기지들마다에 장군님의 애민헌신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홍단감자가공공장을 찾으셨을 때였다.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앞으로 생산공정을 더 현대적으로 꾸려 제품의 질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생활이 윤택해질수록 제품의 질과 함께 그 가지수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는 더욱 더 높아지기마련이다.

이 점을 헤아리시여 장군님께서는 지금있는 감자가공품에 가지수를 더 늘여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하신것이였다.

혜산신발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그이께서는 질좋고 맵시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신발을 보시고 그에 자만하지 말고 계속 혁신하라고 높은 생산목표를 세우고 박차를 가하도록 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한것이라면 만족을 모르신다. 무엇을 하나 해놓고 자랑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된다는것이 그이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생산자들에게 하시는 당부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전에 인민을 위해 당하는 국가의 《손실》은 손실이 아니며 인민의 복리를 위해 더 많은 돈이 지출될수록 우리 당은 더 큰 기쁨을 느끼며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손실》을 당할수록 우리 국가는 더 큰 만족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장군님께서 바로 그러하시다.

그이께서 평양곡산공장을 찾으시고 인민의 복리를 위한 또 하나의 큰 재부가 마련된것이 감개무량하시여 생산자들에게 무려 세번이나 감사를 전하신것을 보면 장군님의 만족이란 어떤것인가를 사람들은 알수 있을것이다. 그이의 현지지도후 현대화를 실현한 평양곡산공장에서 생산능력이 종전에 비해 3배이상 높아져 시민들이 더 큰 덕을 보게 된것이다.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목표와 과업을 실천한 룡성식료공장에서는 고기맛간장과 가공소금 등 각종 식료품을 생산하는 최첨단수준의 간장직장이 새로 건설되여 기초식품생산에서 비약적발전을 이룩했다. 그 맛과 수질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강서약수공장의 약수생산량은 지난 기간에 비해 10배로 늘어났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성식료공장에서는 산과실음료, 콩우유 및 두부생산공정을 비롯한 모든 생산공정이 현대화, 과학화되여 사람들의 구미에 맞고 질높은 단물, 산나물장절임을 비롯한 각종 식료품들이 쉬임없이 쏟아져나오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수백여개의 지방공업공장들이 현대화되여 인민생활에 절실한 식료, 일용제품들을 다량생산하고있다.

현실은 공화국에서 경공업의 잠재력이 참으로 대단하며 인민들이 경공업의 비약적발전으로 윤택한 생활을 누릴 그날은 가까와오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명금룡

쌍알에 비낀 소원

지난해 8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927닭공장을 찾으시였다.

가금기지를 돌아보시며 이 공장에 와보니 기분이 좋다고, 정말 기분이 좋다고 거듭 만족해하신 그이께서는 콘베아를 타고 쉼없이 흐르는 닭알들을 보시다가 큰 닭알을 손에 드신채로 닭알들이 크고 쌍알도 많이 나온다고, 그것은 앞으로 닭알이 많이 생산될 좋은 징조인것 같다고 하시였다.

쌍알이라는 그이의 말씀을 외우는 공장사람들에게는 불현듯 몇해전에 있은 일이 떠올랐다.

장군님께서 그 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새로 현대적으로 건설된 닭공장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알알이 쏟아지듯 생산되는 닭알을 보신 그이께서는 마치 닭알폭포가 쏟아져내리는것 같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큰 닭알들을 보시고는 쌍알일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듣고 여느것보다 큰 닭알을 깨보니 신통하게도 노란자위가 두개였다.

쌍알을 놓고 웃음이 감도는 그 자리에 수령님께서 인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시려고 가금업발전을 위하여 그처럼 마음을 많이 쓰시였는데 이제는 수령님의 소원을 풀어드릴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이 저력있게 울리였다.

수령님의 념원과 자신의 소원대로 인민들에게 복이 쌍으로 차례지게 하시려는 그이의 마음이 담겨져있었다.

그이께서는 그날 닭고기와 알생산장성을 위한 복합미생물에 의한 닭배설물처리기술과 그 우월성에 대해서도 손수 알려주시며 축산과 농산을 유기적으로 배합하는 생산체계를 세울데 대해 간곡히 강조하시였다.

그 사육방법을 받아들인 후 공장에서는 자기 능력보다 1만 수천알이나 더 생산했는가 하면 닭고기는 년산능력보다 수백t 더 증산하게 되였다.

그때 일을 더듬는 공장사람들에게 장군님께서는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는데서 이 닭공장이 제일 모범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하나의 가금기지에도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그처럼 마음쓰시는 장군님의 진정이 어려있는것이다.

본사기자

927닭공장에서 조국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일념안고 닭알생산을 늘이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대화와 협상의 길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민족을 위한 애국의 중대결단

지난 5일 공화국의 중대제안을 담은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이 발표되였다. 성명에서 공화국은 남조선당국을 포함하여 정당, 단체들과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가지고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협의하며 당면하여 서로의 비방중상을 중지하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것을 정중히 제의하였다.

공화국이 새해공동사설에서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를 민족의 비극을 끝장낼 희망의 년대, 통일과 번영의 년대로 빛내여나가자고 호소한데 이어 정부, 정당, 단체 련합회의를 소집하고 북남관계개선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중대제안을 발표한것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년대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애국의 결단으로 된다.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고 대화와 협상으로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할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공화국의 중대제안에 지체없이 응해나와야 한다.

대화와 협상은 현 난국을 타개할수 있는 유일한 출로이다.

지난 3년간의 교훈은 대결의 방법으로는 결코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할수 없으며 무력충돌과 전쟁밖에 가져올것이 없다는것이다. 지난해 북남관계가 파국의 나락에 굴러떨어지다 못해 포탄이 오가는 험악한 사태까지 빚어졌던것이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만약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될수록 북남사이에 대결과 불신의 골은 깊어지고 종당에는 전쟁밖에 터질것이 없다.

사상과 제도의 차이는 결코 불화와 적대의 원인이 될수 없으며 대대로 한강토에서 한피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이 서로 불신하고 대결할 리유가 없다. 우리 민족끼리 손을 맞잡고 마음과 힘을 합치면 우리 민족은 이 세상에 가장 존엄높고 힘있는 민족으로 자랑떨치게 될것이다.

북남사이에는 이미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들을 해결한 좋은 전례가 있으며 그렇게 마련된 훌륭한 원칙과 선언들도 있다. 서로 마주앉으면 오해와 불신도 풀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도들도 나오는 법이다.

문제는 대화와 협상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대화의 마당에 선뜻 나서는 용단이 필요한것이다.

오늘 조성된 정세는 이 땅에 사는 우리 민족성원 누구나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과감히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이 땅에 전쟁이 터지면 누구도 무사할수 없다.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은 북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모두를 위한 거족적인 사업이며 그 덕을 볼것도 우리 민족자신이다. 하기에 공화국은 성명에서 조성된 사태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소속과 정견, 신앙의 차이와 과거를 불문하고 민족대단합의 견지에서 언제 어디서든 만날수 있다는것을 명백히 하였다.

지금 북남사이에는 긴장완화와 평화, 화해와 단합, 협력사업 등 절실한 문제들이 해결을 기다리고있다. 그것은 어느것이나 다 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다. 북과 남이 당리당략과 주의주장을 초월하여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된 문제토의에 진지하게 림한다면 얼마든지 민족의 기대에 보답하게 될것이다. 당면하여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조성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을 취하는것이 중요하다.

공화국은 련합성명에서 서로의 비방중상을 중지하며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것을 제기하였다. 서로에 대한 비방중상이 란무하고 자극적인 행동이 벌어지는 속에서 대화와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일이다. 대화분위기를 해치는 자그마한 언행과 무책임한 행동도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배치되는 행위라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인민들은 이번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을 《전제조건없는 북의 대화제의》, 《공명정대한 애국애족의 발기》, 《가장 정당한 애국적호소》라고 하면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담화를 발표하여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에서 천명된 중대제안을 적극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취하였다. 이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북측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 북측 소장이 남측의 통일부와 남조선적십자사 총재,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 남측 소장앞으로 통지문을 보내여 북남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과 북남적십자회담을 진행할것을 제의하였으며 판문점적십자련락통로를 다시 열고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정상운영한다는것을 언명하였다.

이제 북남관계가 민족의 기대에 맞게 개선되느냐 아니면 파국의 나락에서 영영 헤여나오지 못하느냐 하는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남조선당국은 대화와 협상을 바라는 민족의 기대에 맞게 하루빨리 대화의 마당에 나서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문제해결의 유일한 길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보다 더 사활적인 과제는 없다. 이번에 발표된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은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온 겨레의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현시기 북남관계는 남조선당국의 친미사대, 동족대결책동으로 하여 파국의 나락에 굴러떨어져 포탄이 오가는 험악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때일수록 북과 남이 마주앉아 대화를 통해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문제해결의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야 한다.

하기에 공화국은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가 시작되는 올해에 북남사이에 조성된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련합성명을 발표하여 남조선당국을 포함한 정당, 단체들과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가질것을 제의하였다.

대화와 협상만이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는 현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지난 시기 북남사이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한 좋은 전례가 있다.

분렬의 비운이 짙게 드리웠던 1970년대초 북과 남은 고위급회담을 열고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한 7.4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온 겨레가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특히 새 세기에 들어와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되고 우리 민족끼리를 근본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다.

6.15공동선언발표후 7년이라는 기간 북남사이에는 상급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와 적십자회담을 비롯하여 당국과 민간단체들사이에 대화와 접촉, 협력사업들이 무려 백수십여차례나 진행되였으며 그 과정에 민족적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대화와 협상만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며 평화번영을 이룩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나라의 통일문제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북과 남의 우리 민족끼리 마주앉아 해결해야 한다.

남조선에서 보수《정권》이 출현한이래 단 한번도 대화다운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조건에서 북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이 열리게 되면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자주적평화통일에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협의할수 있게 될것이다. 최악의 상태에 이른 북남관계를 풀기 위해 당국이든 민간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이든 보수이든 가림없이 대화와 협상에 나서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조선당국은 대화와 협상만이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해결의 유일한 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공화국의 공명정대한 제의에 성실한 자세로 나와야 한다.

림소영

《대화와 협력밖에 다른 길은 없다》

—남조선 각계가 주장—

남조선 각계에서 당국이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 관계개선에 나설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더욱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지난해 12월말 남조선의 6대종단과 시민사회원로인사 등 137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한반도평화를 위한 근본대책마련은 남북대화와 협력의 복원에서 시작될수밖에 없다.》고 호소하였다.

남조선의 평화운동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도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이 북과의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설것을 주장하였다. 단체는 《여러차례에 걸쳐 련합전쟁연습을 강행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진하며 조선반도에 전쟁의 먹구름까지 몰고온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라고 하면서 당국이 침략적인 외세가 아니라 동족과 손잡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해나갈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새해를 맞으며 서울에서 모임을 가지고 당국이 북남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것을 요구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모임에서 발언한 시민사회단체련대회의 공동대표들은 북남관계가 파탄되고 조선반도의 평화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있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 개탄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당국이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그들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과 금강산 및 개성관광재개 등 북남관계정상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남조선의 전직, 현직교수들도 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더이상 전쟁을 부추기지 말고 전쟁방지와 평화정착을 위한 길에 나서야 하며 금강산관광재개, 경제교류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 《무모한 체제통일시도는 중지되여야 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민주당과 진보신당도 론평을 발표하고 《리명박〈정권〉은 대북강경책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력으로 풀겠다는 진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남조선의 《래일신문》의 한 론설원은 《대화와 협력밖에 다른 길은 없다》는 론설을 발표하여 남조선인민들이 이를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얼마전 남조선의 어느 한 신문사가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4.8%가 조선반도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당국의 《대북정책》을 부정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방도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한 사람들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한 대학교수는 전쟁의 위험이 커갈수록 악화된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려는 민심의 지향이 더욱 강렬해지고있다고 평하였다.

본사기자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에 호응하여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에 접하고 그에 적극 호응해나서고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지난 7일에 성명을 발표하여 《북이 이번에 발표한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을 현〈정부〉가 민족의 화해와 평화실현의 계기로 잘 살려나가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속히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민주로동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한반도평화를 위해 리명박〈정부〉가 즉각 대화에 나서라는것은 우리 국민들의 지상명령》이라고 강조하면서 공화국의 련합성명내용을 적극 지지하는 론평을 발표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와 학술본부, 《한국진보련대》,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성원들도 성명, 론평, 공동성명들을 발표하여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내용을 《전제조건없는 북의 대화제의》라고 하면서 당국에 조속히 북과의 대화에 나설것을 촉구하였다.

민주당의 남북평화특별위원회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 환영한다.》며 《리명박〈정부〉 역시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며 남조선의 《전국교수로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등에 소속된 213명의 전, 현직교수들은 《남북사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대화를 시작하자》는 내용의 교수선언문을 발표하며 현《정부》가 대화에 나설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의와 아량의 표시

지난 1월 5일 공화국은 련합성명을 발표하여 남조선당국을 포함한 정당, 단체들과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가질것을 제의하면서 대화와 협상, 접촉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화해와 단합, 협력사업을 포함하여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협의해결해나갈 립장을 밝히였다. 그리고 1월 8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대변인담화를 발표하여 련합성명에서 천명된 중대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취하였다.

이것은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통일의지, 동족에 대한 선의와 아량의 표시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금 북남사이에는 분렬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이르고 무거운 대결의 기류가 겨레의 가슴을 짓누르고있다. 북남대결상태는 위험계선을 넘어 전쟁으로까지 치닫고있다.

이런속에서도 공화국은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가 시작되는 올해에 어떻게 하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대화와 협력을 실현하여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넓은 아량과 통일애국의지로 련합성명을 발표하고 그 실현을 위한 대범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는 그 정당성으로 하여 발표되자마자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그런데 지금 남측은 《핵문제》와 《천안》호사건문제를 대화에서 먼저 론의해야 한다고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북남대화와 협상을 바라는 온 겨레에게 실망만을 자아내고있다.

북과 남이 마주앉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비단 그것뿐이 아니다. 많은 중대사가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고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남측이 당국회담에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

동족끼리 마주앉아 속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그 과정에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가시며 북남관계문제, 나라의 통일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나가자는것이 바로 공화국의 립장이고 자세이다. 공화국의 이번 제안과 실천적조치들에는 아무런 조건부도, 어떠한 사심도 없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공화국의 중대제안과 그 실행을 위한 실천적조치들에 응해나오지 못할 리유가 없다.

본사기자 전덕성

애국적이고 평화애호적이며 대범한 중대제안

로씨야고통련이 련합성명을 지지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로씨야고통련)가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이 5일 련합성명을 통해 조선반도와 북남관계에 조성된 엄중한 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남조선당국을 포함하여 정당, 단체들과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가질것을 제안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로씨야고통련은 련합성명이 현 북남관계악화를 막고 민족의 화해와 공동번영,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수 있는 지극히 애국적이고 평화애호적이며 대범한 중대제안이라고 인정하면서 이를 적극 지지환영한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성명은 지난 3년간 현 남조선당국이 외세에 아부하며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알찬 열매들을 짓밟고 조선반도를 새로운 전쟁이 터질수 있는 열점지역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당국이 더이상 백해무익한 민족대결정책을 버리고 공화국의 성의있는 중대제안에 호응해나섬으로써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현 난국을 타개하고 늦게나마 민족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성명은 로씨야고통련이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에 적극 호응해나서며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6.15정신에 기초하여 통일애국활동을 더욱 적극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가장 정당한 애국적호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조선반도와 북남사이에 조성된 현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것을 호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을 지지하여 6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정당, 단체들이 련합성명에서 올해에 최악의 상태에 이른 북남관계를 풀기 위해 당국이든 민간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이든 보수이든 남조선당국을 포함한 정당, 단체들과 적극 대화하고 협상할것을 제의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 제의는 6.15의 흐름을 이어나가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를 민족의 비극을 끝장낼 희망의 년대로, 통일과 번영의 년대로 빛내여나가기 위한 매우 시기적절하고 정당한 애국적호소로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한다고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우리 민족이 세기와 년대를 넘으며 아직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것도 가슴아픈 일인데 21세기의 오늘에 와서까지 세계면전에서 서로 싸우는것은 더욱 참을수 없는 비극이고 수치라고 지적하였다.

남조선당국과 정당, 단체들이 공화국의 제안에 적극 응해나서야 할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성명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본사기자

선의의 조치에 적극 화답해나와야 한다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들이 련합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담화를 통해 북남당국사이의 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할것을 제의하였다.

이것은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려는 일념에서 나온 지극히 정당한 제안이다.

돌이켜보면 북과 남은 1970년대초와 2000년, 2007년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서로 마주앉아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의 회담을 가진 좋은 전적을 가지고있다. 결과 7.4북남공동성명이 채택되고 새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들도 채택발표되였다.

결과 민족분렬의 쓰라린 고통과 아픔만을 더해주던 이 땅에서 통일의 신심과 락관이 차넘치고 끊어졌던 도로와 철도가 련결되여 민족의 통일의지를 널리 과시하였다. 한지맥을 이은 이 땅에 상봉의 기쁨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그 륙로선에 몸을 싣고 비전향장기수들이 분렬선을 넘었으며 북녘의 체육선수들이 남녘의 선수들과 손을 맞잡고 경기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경이적인 현실들도 펼쳐졌다.

분렬의 시대가 남긴 상처와 한이 아무리 크다 해도 따뜻한 혈육의 정보다 클수 없고 북과 남에 그 어떤 차이가 존재한다 해도 그것을 얼마든지 뛰여넘어 하나로 화합할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근 3년사이에 6.15의 성과물들은 모두 마사지고 북남관계는 파국의 나락에 굴러떨어져 서해상에서는 동족사이에 포탄이 오고가는 엄중한 사건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사태는 우리 민족이 결코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며 이를 방임한다면 재난을 피할수 없다.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소속과 정견, 신앙의 차이와 과거를 불문하고 민족대단합의 견지에서 대화하며 오해를 풀어야 한다.

만나면 모든 문제가 풀릴수 있다.

지금 새해를 맞으며 남조선의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들이 각계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민의 절대다수가 북남대화를 통해 《안보위기》를 해소할것을 요구하면서 공화국의 대화제의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진심어린 의지의 표명》으로 평가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다시한번 현실을 바로 보고 공화국의 대화제의와 선의의 조치에 적극 화답해나와야 한다.

본사기자 서명수

민족의 평화지향에 대한 도전

남조선에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대결소동이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다.

새해에 들어와 남조선에서 동족을 반대하는 《특수전훈련》이니, 《기계화화력훈련》이니, 《혹한기훈련》이니 하는 전쟁연습소동들이 광란적으로 벌어진것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얼마전에는 《방문행사》의 미명하에 미핵항공모함 《칼빈손》호가 남조선의 항구에 닻을 내리였다.

지난해에 이어 년초에도 남조선에서 이러한 반공화국군사적대결소동이 계속 벌어지고있는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절실히 바라는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지향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도전으로 된다.

다 아는바와 같이 공화국은 새해공동사설을 통하여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전쟁위험을 가시며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련이어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들은 남조선당국을 포함하여 정당, 단체들과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가질데 대한 중대제안들을 발표하였다.

지금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공화국의 원칙적이고 포옹력있는 호소와 대화제의에 온 겨레는 물론 세계평화적인민들이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새해 정초부터 위험한 군사적대결소동들이 또다시 벌어지고있는것은 내외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이것은 정세를 또다시 격화시키는 위험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한쪽에서는 북남대화와 협상을 요구하는데 다른쪽에서는 상대방을 자극하고 위협하는 화약내나는 전쟁소동들이 벌어지고있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용납될수 없다.

남조선에서 군사적대결소동이 계속 벌어질수록 거기서 득을 보는것은 남조선이 아니라 침략적인 외세이다.

이 땅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난다면 삼천리강토우에 무서운 핵참화밖에 가져올것이 없으며 그로 인해 피해를 볼것은 한강토에서 피를 나누며 살아온 우리 민족이다.

남조선의 군부당국은 무모한 동족대결소동으로 차례질것은 민족의 준엄한 규탄과 저주뿐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대화와 협력분위기를 해치는 군사적대결소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김철호

조선반도평화실현에 나설것을 호소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련대회의가 4일 서울에서 모임을 가지고 조선반도평화실현에 각계각층이 적극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단체는 남북관계가 파탄되고 평화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있는 현실에 우려를 금할수 없다고 밝혔다.

남북사이 긴장고조와 무력충돌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민족전체라고 하면서 단체는 현 《정부》가 북을 자극하고 군사적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단체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위기를 타개하고 평화실현을 위한 투쟁에 각계각층이 적극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한편 남조선의 민가협 량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오헌이 10일 《대화와 협력만이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글은 온 겨레가 남북사이의 대화와 협력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통일을 이룩할것을 바라고있다고 밝혔다.

한 민족이 외세에 의해 서로 갈라져 살고있는것만도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불신과 대결로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겪을수는 없다고 글은 주장하였다.

글은 북이 새해공동사설과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을 통해 폭넓은 대화와 협상으로 조선반도평화를 실현할것을 제의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당국이 그 무슨 《진정성》을 운운하며 이를 부정적으로 대하고있다고 글은 비난하였다.

글은 당국이 대결정책을 철회하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나아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전쟁반대, 평화수호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초불시위

비방중상과 자극적인 행동은

북남관계를 해치는 불씨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에서는 북과 남이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가지고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협의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여기에는 당면하여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조성을 위해 서로에 대한 비방중상을 중지하며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데 대한 제안도 들어있다.

북과 남이 서로 비방중상과 자극하는 행동을 중지할데 대한 이번 제의는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며 평화와 통일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나가기 위한데로부터 출발한 애국애족의 발기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여야 하며 여기에서 중요한것이 서로의 비방중상과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중지하는것이다.

그것은 비방중상과 자극적인 행동이 북남관계를 해치는 불씨이고 군사적충돌을 유발할수 있는 위험한 도화선이기때문이다.

비방중상과 자극적인 행동은 그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의 표시이며 이것이 격화되면 충돌을 일으키고 종당에는 전쟁을 불러온다.

서로의 비방중상이 란무하고 자극적인 행동이 벌어지는 속에서는 언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비방중상과 자극적인 행동이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에 어떤 해를 끼쳤는가 하는것은 지난 시기의 사실들이 잘 말해주고있다.

지난해 11월에 있은 연평도포격사건만 보아도 상대를 자극하는 행위가 얼마나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그 무슨 《인권문제》를 비롯해서 공화국을 적대시하고 모해하려는 움직임들이 없어지지 않고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적의와 불신의 표시로서 가뜩이나 험악한 북남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있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첨예하게 대치되여있는 지금의 조선반도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임의의 도발소동은 쉽사리 무력충돌과 전면전쟁으로 타번질수 있다.

하기에 북과 남은 이미 7.4공동성명과 북남공동선언들을 통하여 서로 비방중상을 중지하며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데 대해 확약하였던것이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북과 남은 한동안 서로 비방중상하는 행동을 중지함으로써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이처럼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이 제안하고있는 내용들은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위해 시급히 협의해결되여야 할 매우 중대한 문제들이다.

남측이 민족을 위한 바른립장에 서있다면 공화국의 폭넓은 대화제안을 외면할 리유가 없다.

서철수

단평

허황한 꿈

최근 남조선에서 《뉴라이트전국련합》을 비롯한 극우보수단체들이 조선반도의 통일은 그 누구를 《주축》으로 되여야 한다고 떠들면서 올해를 이른바 《자유통일의 원년》으로 한다는 《선포식》을 벌려놓았다.

통일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는 무지의 산물이 아닐수 없다.

북과 남이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민족적리익을 앞세워 뜻과 마음을 합칠 때만이 통일은 이루어질수 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통일운동에서 찾은 진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극우보수단체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옳바른 안목도 없이 《주축》이니, 《자유통일원년》이니를 운운하는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흡수통일》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은것으로서 허황한 개꿈에 불과하다.

지난 3년간 북남관계가 전쟁국면에로까지 치달은것은 북남관계에 아무런 보탬도 못 주고 훼방을 놀며 못된짓만 일삼아온 남조선의 극우보수단체들의 쏠라닥질과도 무관하지 않다.

올해 공화국은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통일을 하루빨리 이루기 위하여 과거를 불문하고 그 누구와도 만나 대화할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서로의 비방중상과 자극적인 행동도 하지 않을것을 제의하였다.

공화국의 이 획기적인 대화제안은 온 겨레의 즉시적인 호응을 불러일으켰으며 남조선의 여야당을 비롯한 정계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이러한 분위기는 북남대화와 관계개선, 통일문제해결에서 큰 전진을 가져오게 할것이다.

이런 속에서 고의적으로 벌어지는 남조선 극우보수단체들의 불미스러운 대결소동은 겨레의 분노만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들이 대화의 기류에 역행하여 대결소동을 계속 벌릴수록 차례질것은 더 큰 고립과 파멸뿐이다.

김정혁

재침의 길을 열어주는 반민족적범죄행위

남조선이 일본과의 군사적결탁을 날로 더욱 강화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군부당국은 일본방위상을 초청하여 남조선일본《군수지원협정》체결을 먼저 협의하기로 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은 나중에 하며 장차관급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군사적결탁강화를 모의하였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엄중한 범죄행위가 아닐수 없다. 알려진바와 같이 공화국은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를 맞이하는 올해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을 발표하여 북남사이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 접촉을 가질것을 남측에 제의하였다. 조선반도와 북남사이에 조성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호소는 지금 내외의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고있다.

이러한 때에 남조선군부당국이 일본과 군사적결탁을 강화하기 위한 모의를 벌린것은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것으로서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무모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이 일본과 군사적결탁을 강화하는 여기에는 일본에게 재침의 길을 열어준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본이 지난 40여년간 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온갖 고통과 불행을 강요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우리 민족에게 끼친 전대미문의 범죄에 대하여 진정한 사죄와 철저한 배상을 하지 않고있다. 오히려 저들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재침의 칼을 벼리고있다. 일본은 이미 조선반도《유사시》를 가상하여 《주변사태법》을 제정하였으며 최근에는 《집단적자위권》과 관련한 법개정도 검토하고있다.

우리 민족의 고유령토인 독도에 대한 강탈야망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속에 얼마전 일본수상은 《길을 빌려달라.》고 부르짖으며 1590년대 우리 나라를 침략한 사무라이들의 본성그대로 조선반도《유사시》 남조선에 있는 일본인들과 그 무슨 《랍치자구출》이라는 미명하에 조선반도에 일본《자위대》를 파견할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 기회만 있으면 또다시 재침하려는 일본의 범죄적책동은 절정에 이르고있다.

바로 이러한 일본과 군사협정까지 체결하려고 하는것은 재침에 들뜬 일본에 날개를 달아주는것과 같은것으로 온 민족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낼 일이 아닐수 없다.

문제의 엄중성은 비단 여기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지금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긴장격화를 부추기며 그를 구실로 남조선, 미국, 일본사이의 3각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 하고있다.

남조선과 미국, 미국과 일본사이의 군사적동맹이 강화되고있는 속에 남은것은 일본과 남조선사이의 군사동맹뿐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남조선과 일본사이에 군사협력을 강화하도록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고있다. 지난해 12월 9일 미합참의장이 남조선과 일본이 《과거문제를 초월해 군사분야 협력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떠든것은 그 한 실례이다.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군사협력강화를 계기로 3각군사동맹은 가동단계에 들어갔다. 일본의 보도수단들이 앞을 다투어 《이번 회담은 남조선, 미국, 일본 방위협력강화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하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 3각군사동맹이 노리는 첫 대상은 바로 공화국이다.

남조선과 일본이 미국의 조종하에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만을 불러오는 3각군사동맹에 적극 매여달리면서 정세를 긴장시킬수록 그에 대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있다.

남조선당국이 화해와 평화를 위한 동족의 대화제의에는 아직까지 응하지 않으면서 우리 민족의 가슴에 씻을수 없는 원한의 상처를 남긴 일본과 군사적협력을 강화하는 길로 나가고있는것은 죄악이며 극도의 동족대결의식과 친일매국근성을 보여주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의 분노를 자아내는 일본과의 군사적결탁강화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김응철

남조선과 일본의 군사적결탁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일본방위상의 행각을 반대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이 11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제2함대사령부앞에서 일본방위상의 남조선행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남조선과의 군사협정체결을 위해 기여든 일본방위상의 함대사령부에 대한 행각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남조선과 일본이 군사협력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정비에 나선것은 일본《자위대》의 조선반도진출을 정당화하고 군사동맹을 빠른 시일안에 완성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회견문은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일본과의 군사협정이 체결되면 평택은 미군은 물론 일본해상《자위대》까지 수시로 드나드는 거점으로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회견문은 일본방위상이 군사협정체결론의를 당장 중지하고 제집으로 돌아갈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도중 일본방위상이 탄 차가 나타나자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은 《한일군사회담 반대한다!》, 《일본은 물러가라!》, 《군사동맹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웨쳤다

본사기자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규탄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가 전한데 의하면 11일 서울 광화문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민주로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최로 《제136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이 열렸다.

집회에서 채택된 성명은 《북정권붕괴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령토주권을 침해하고 군사대국화의 야심을 불태우며 역내 갈등을 고조시키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도모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정책에 날개를 달아주어도 된다는 정부의 발상에 경악하지 않을수 없다.》고 하면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집회에서 연설자들은 《일본이 과거 침략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충실히 하지 않는 한, 독도를 비롯한 령토주권을 침해하고있는 한, 미국의 패권정책을 역내에서 관철하는 가운데 군사대국화를 추진하여 동북아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 결코 우리의 군사협력대상이 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완성될 남조선미국일본사이의 군사동맹이 《중국, 로씨야, 북을 상대로 한 패권동맹이라는 점에서 동북아일대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대북적대적이고 패권적인 군사협력을 철회하고 동북아의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향한 정책전환에 나설것》을 촉구하였다.

본사기자

올해의 총공격전은 인민생활향상 대진군의 새로운 높은 단계

새해 주체100(2011)년은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공격전의 해이다.

올해 공화국에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내세웠다.

새해를 맞으며 발표된 공동사설에는 《새해 주체100(2011)년은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공격전의 해이다.》라고 명시되여있다.

이것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공화국이 경제강국의 목표까지 달성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탄생 100돐을 맞는 뜻깊은 래년에는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한것으로 된다.

경제강국을 건설하는것은 결국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민생활을 높여야 온 나라에 사회주의 만세소리,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질수 있으며 강성대국의 대문이 활짝 열릴수 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진군은 어제오늘 비로소 시작된것이 아니다. 올해의 총공격전은 지난 시기 벌려온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계속이다.

지난 시기 공화국은 언제나 인민생활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고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큰 힘을 기울여왔다.

가장 엄혹한 시련의 시기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변함없이 실시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공화국의 인민적시책은 나날이 더욱 확대되고있다. 사랑알보다 총알이 더 귀중했던 고난의 그 나날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콩우유차가 하루도 번짐이 없이 거리를 달리였고 배움의 창가에서는 행복넘친 노래소리가 랑랑히 울려퍼졌다.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도처에 발전소들을 일떠세우고 대규모토지정리를 하여 국토의 면모를 일신하였으며 축산기지, 양어기지들을 수풀처럼 일떠세우고 중앙과 지방의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였다.

지난해에 최첨단기술로 장비한 경공업공장들과 현대적인 축산, 양어, 과일생산기지들이 자기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은것도 나라에서 인민생활향상에 큰 힘을 넣었기때문이다.

올해의 총공격전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강성대국의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한 대진군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세상에서 으뜸가는 강성대국에서 사는 인민들의 생활수준은 마땅히 최상의 높이에 올라서야 한다.

공화국에서는 이미 강성대국의 표본으로 되는 공장과 농촌, 양어장과 과수원, 상점과 식당, 유원지와 살림집들, 선경거리와 선경마을들을 일떠세웠다.

더우기 지난해는 장엄한 대고조진군속에서 빠른 시일에 인민생활을 비약적으로 높일수 있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난 거창한 변혁의 해였다.

경공업과 농업, 화학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관련된 공업부문들에서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를 대량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휘황한 전망이 열렸다. 대계도간석지, 례성강청년2호발전소를 비롯하여 수백개의 중요대상들이 새로 일떠서고 도처에 선군시대의 희한한 선경들이 펼쳐졌다. 최첨단돌파전의 불길높이 정보기술, 핵기술과 같은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혁혁한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을 비롯한 인재양성의 전당들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변되였다.

우리가 그처럼 바라던 강성대국의 리상을 전면적으로 꽃피울수 있는 토대가 축성됨으로써 인민생활을 한계단 높은 단계에로 비약시킬수 있는 길이 확고히 열려졌다.

올해 공화국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시켜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강성대국의 높이에 올려세워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새해공동사설은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것을 호소함으로써 천만군민의 심장에 애국의 불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령도자가 위대하고 인민이 위대하기에 올해의 총공격전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이 땅우에 강성대국의 무릉도원은 반드시 현실로 펼쳐질것이다.

유병호

공화국은 2011년에 즈음하여 발표한 공동사설에서 경공업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전환을 일으킬것을 호소하였다.

무릇 박차를 가한다는 말은 일이 더 빨리 진행되도록 작용하거나 힘을 더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잘 달리는 말에 더더욱 기세를 가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강성대국건설에서 경공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의미는 힘을 더 낸다든가 더 빨리 달린다는것과 같은 단순한 의미에서 벗어나 천만군민이 일심단결하여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간다는 뜻이다.

지난해 공화국에서는 경공업의 비약적발전을 뒤받침해주는 힘있는 기간공업과 강력한 과학기술력량이 마련되였으며 겹쌓인 시련속에서 경공업을 상승궤도에 올려세운 귀중한 투쟁경험도 마련되였다. 주체철생산체계가 확립되여 자립경제의 억센 강철기둥이 세워졌으며 주체섬유인 비날론이 쏟아지는 온 나라의 대경사가 이룩되였다. 주체비료가 폭포처럼 쏟아져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린데 이어 대계도간석지의 완공과 대규모 철갑상어양어체계를 확립한 룡연땅의 기적이 창조되고 도처에 현대적인 식료 및 가금기지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다.

그뿐이 아니다. 평양무용대학, 국립연극극장, 옥류관 료리전문식당, 보통강백화점, 새로 일떠선 해방산기슭의 살림집들을 비롯하여 말그대로 다계단의 사변들이 이 땅에 현실로 펼쳐졌다.

강성대국건설진군을 가로막으려는 내외반동들의 갖은 제재와 봉쇄속에서 공화국이 이룩한 성과들은 참으로 경이적인 사변이 아닐수 없다.

과연 그 무슨 힘이 이런 기적을 창조하였는가.

난관앞에 굴함을 모르고 성과앞에 자만을 모르며 오직 최후승리를 위해 앞으로 내달리는 공화국인민의 정신력에 있다.

더듬어보면 공화국은 창건초기부터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해왔다. 해방후 증산경쟁운동의 불길높이 새 조국을 일떠세웠고 전후에는 천리마대진군을 힘있게 벌려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부강한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웠다.

70년대의 사회주의대건설투쟁과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거쳐 승리의 신심과 백절불굴의 의지로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과감히 이겨낸 공화국이 지금은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는 인민의 천만복이 현실로 꽃피는 사회주의리상사회의 대문으로 들어서는 긍지높고 환희에 찬 길이기도 하다.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드놀지 않는 신심과 배짱으로 순간의 답보나 멈춤을 모르고 최후승리를 향해 박차에 박차를 가하며 달리는 우리 조국.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살게 될 강성대국은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다.

본사기자 주광혁

륭성번영의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는 영웅적인민

외국인들의 반향

공화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며 조국땅우에 륭성번영의 전성기를 펼쳐가고있는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목격하고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네팔기자협회 위원장 만주라뜨나 사끼야는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끊임없는 진보를 이룩하고있다.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고있다.

조선인민에게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로씨야철학협회 띤다지부 주체사상연구소소 책임자 겐나지 아스따호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은 경제건설에서도 새로운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그것은 조선인민이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발전풍부화하시는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있기때문이다.

오스트리아 윈에 있는 **김정일**주체사상연구청년소조책임자 토마스 뢰쉬는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는 빛나는 결실을 가져오고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커다란 고무를 받고있다, 조선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방글라데슈자력갱생연구소 위원장 가리브 네와즈는 위대한 **김정일**각하는 탁월한 정치가이시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정일**각하를 끝없이 신뢰하고있다.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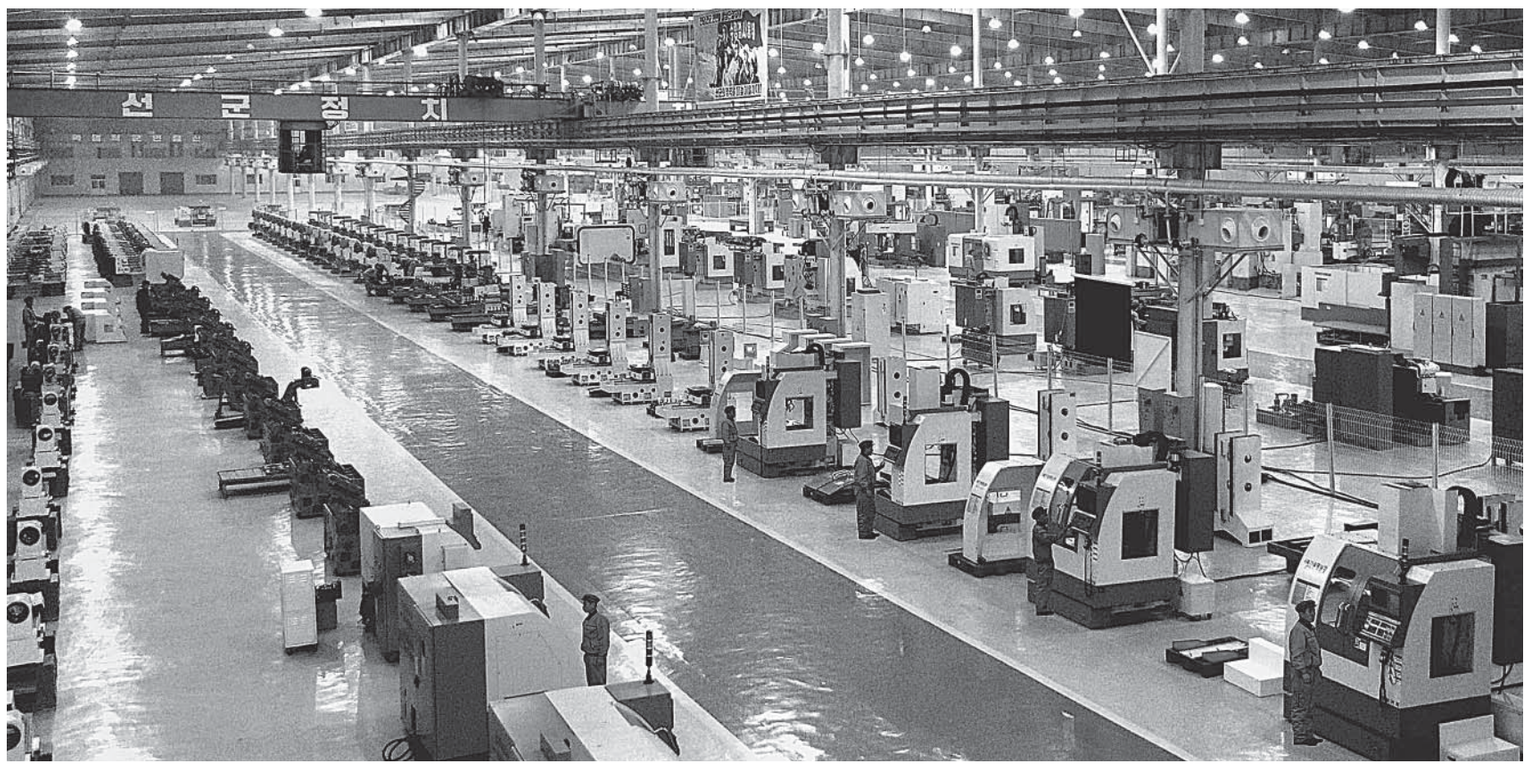
그들은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이겨내며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고있다.

사회주의조선에서는 륭성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다.

이것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에게 큰 고무적힘을 안겨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며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조선인민에게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믿는다.

본사기자



CNC기술의 패권을 틀어쥐고 최첨단돌파전의 선봉에서 내달리고있다.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에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 — 국립연극극장

날마다 새로운 선경들이 펼쳐지는 이 땅우에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인 국립연극극장이 훌륭히 일떠섰다.

풍치수려한 평양의 대동강반에 날아갈듯이 경쾌한 지붕을 얹고 우아함과 웅장함, 정교함이 조화롭게 어울린 건축미로 하여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자아내는 국립연극극장.

현대적으로 건설된 이 문화예술전당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좋은 문화정서생활조건을 안겨주시려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의 결정체이다.

국립연극극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일떠세울것을 구상하시고 극장건설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으며 유능한 설계집단과 강력한 건설력량을 보내주시여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어버이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긴 설계집단은 창조적지혜를 발동하여 조선식건축형식을 살리면서도 섬세한 조각과 새로운 마감재료들로 모든 건축요소들의 조형화, 예술화를 훌륭히 보장하였다.

군인건설자들은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깨끗한 량심을 바쳐 불과 4개월남짓한 짧은 기간에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을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훌륭히 일떠세웠다.

《지난해 10월초 완공된 우리 극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극장이 내부구조도 좋고 시공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였을뿐아니라 문화예술전당으로서의 내용과 형식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하시면서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를 후대들에게 넘겨줄수 있게 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습니다.》

국립연극단의 리지영단장은 극장에 돌려주신 장군님의 사랑에 대하여 격정에 넘쳐 이렇게 말하였다.

국립연극극장의 중앙홀에는 공화국의 주체적민족문화건설로선을 받들고 지난시기 국립연극단에서 창작공연한 명작의 장면들을 부각한 조각장식들이 정면벽을 꽉 채우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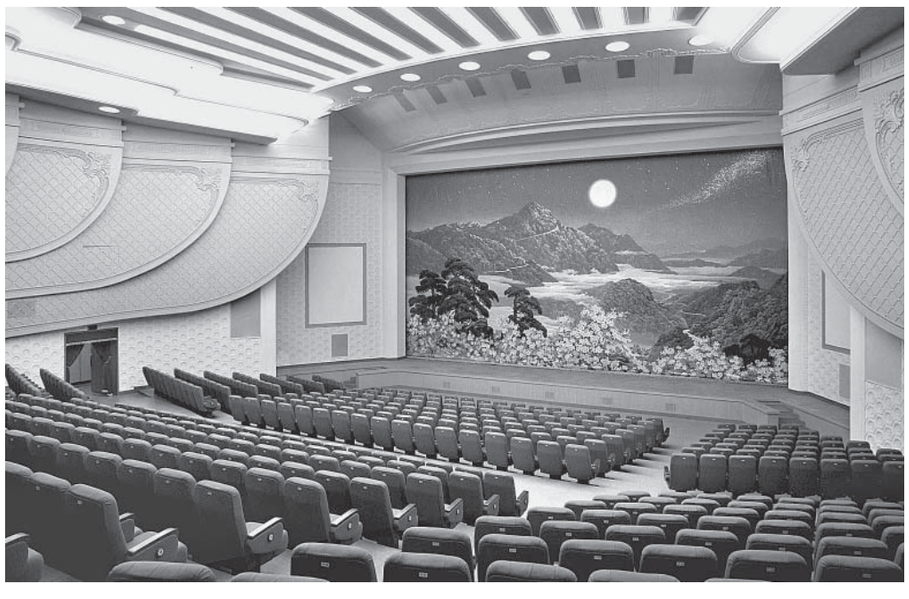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연극으로 형상한 《혈분만국회》, 《딸에게서 온 편지》, 《3인1당》, 《경축대회》 등의 인상적인 장면들은 공화국이 걸어온 연극발전의 자랑찬 력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한다. 홀의 량옆에는 라선형으로 특색있게 뻗어오른 계단들이 건물의 조형예술미를 더해주며 금빛보석같이 현란한 빛을 뿜는 천정무리등들과 하늘의 은하수를 련상시키는 조명장식들, 정교한 장식을 한 기둥들과 마치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는 알른알른한 대리석바닥타일들이 사람들을 완전히 매혹시킨다.

최신식의 조명장치들과 음향설비들을 갖춘 넓은 면적의 무대와 620여석의 관람석을 가진 극장내부는 섬세한 벽면장식과 편리한 좌석, 소리울림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연극공연과 관람에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져있다.

극장내부에는 또한 현대적설비와 비품들을 갖춘 분장실과 련습실들, 편의봉사시설들이 손색없이 꾸려져 예술인들의 작품창작과 공연활동의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진정 우리 인민의 미감과 건축학적요구에 맞게 민족적고전미와 현대미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 국립연극극장은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서의 인민대중의 행복한 삶을 영원토록 꽃피우는 선군시대의 위대한 창조물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추동하는 의의깊은 계기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새해의 총진군길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애국열의를 힘있게 추동하는 선전화전람회가 평양에서 진행되고있다.

만수대창작사와 평양미술대학, 중앙미술창작사, 철도성미술창작사의 미술가들이 내놓은 60여점의 선전화들은 참관자들의 깊은 감명을 자아내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기념하기 위한 온 나라 인민의 열의를 반영한 선전화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김일성**민족의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경사로!》앞에서 참관자들은 공화국의 창건과 륭성번영을 위해 한생을 바쳐오신 수령님의 빛나는 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이번 전람회에서 이채를 띤것은 올해에 경공업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 천만군민의 혁명적기상과 의지를 담은 선전화들이다.

도처에 일떠선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에서 인민소비품들을 더 좋게, 더 많이 생산하도록 고무추동하는 《당의 뜨거운 은정이 깃든 경공업공장들에서 더 많은 인민소비품을!》,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인기상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으로!》와 같은 선전화들은 인민의 리상이 현실로 꽃피는 강성대국이 현실로 펼쳐지고있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선전화 《김철의 신념과 본때, 실천력으로 대고조의 승리를!》, 《석탄을 꽝꽝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자!》와 《인민의 행복을 위한 희천발전소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자!》, 《알곡 정보당수확고를 비약적으로 높이기 위한 경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자!》와 같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의 비약적인 발전을 추동하는 힘있는 선전화들도 사람들의 마음을 한없이 격동시키고있다.

이번 전람회에는 조선반도와 북남사이에 조성된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공화국의 애국애족의 립장을 반영한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와 같은 조국통일주제의 선전화들도 전시되여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고있다.

이번 선전화전람회는 올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심장에 애국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주는 의의깊은 계기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공화국 각지 사찰들에서 《성도절기념 조국통일기원법회》 진행

11일 공화국북반부 각지 사찰들에서는 《성도절기념 조국통일기원법회》가 일제히 진행되였다.

법회들에는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와 각 도, 시, 군위원회 교직자들, 해당 사찰의 승려, 신도들이 참가하였다. 법회들에서는 례식에 이어 연설들이 있었으며 조국통일기원발원문이 봉독되였다.

연설자들은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새해공동사설을 받아안고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총공격전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는 때에 성도절을 기념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해내외 전체 불교도들이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불심화합하여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고 말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불교도들이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며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쟁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며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기 위한 현실참여행에 매진하여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내외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리고 북남공동선언과 그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갈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우리 민족의 자랑

오랜 력사를 거쳐 발전해온 온돌

반만년의 오랜 세월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온 우리 민족문화의 유구한 력사적뿌리는 온돌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온돌은 원시시기 우리 선조들이 움집의 바닥에 화독을 설치하고 그 주위에 둥글넙적한 돌을 놓고 생활하는 과정에 고안해낸것이다. 그후 온돌은 우리 민족의 생활풍습에 맞는 난방시설로 발전되여왔다.

부뚜막과 아궁, 온돌고래와 굴뚝 등으로 이루어진 온돌은 방바닥을 덥혀 방안의 온도를 보장하는 독특한 열복사식난방시설이다. 아궁에서 피운 불과 연기가 방바닥밑의 고래를 따라 돌면서 판돌을 달구는 식으로 열을 보장한다고 하여 온돌을 《구운돌》이라고도 불렀으며 그것이 점차 《구들》이라는 말로 고착되였다.

온돌의 발전력사를 보면 고대시기에는 ㄱ자형 또는 직선형의 구들고래가 한두개 정도인 골구들형식이였다.

세나라시기 우리 선조들은 온돌고래를 더욱 길게 하고 아궁과 굴뚝, 개자리와의 결합을 발전시켜 보다 넓은 면적의 방을 덥힐수 있도록 하였다. 세나라시기 신을 벗고 온돌방에 앉아서 생활한 우리 선조들의 고유한 생활풍습에 대해 이웃나라의 한 력사책에는 《고구려사람들은 겨울이면 긴 고래를 만들고 그밑에 불을 지펴 방안을 덥힌다.》라고 씌여져있다.

고려시기에 와서 온돌은 방바닥전반을 다 덥히는 전면구들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 종전의 골구들형식과는 달리 구들고래가 특별히 따로없이 적은 땔감을 가지고도 방안을 덥힐수 있는 석구들형식도 생겨났다. 온돌은 리조중엽에는 제주도를 비롯한 남쪽지방에까지 널리 보급되였다.

온돌우에서 생활하는것은 오랜 세월 이어져온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활풍습이다. 온돌은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랭기를 막고 관절염과 신경통, 랭병 등 여러가지 질병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등 그 우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몸이 불편하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 따뜻한 아래목에서 땀을 쭉 내면 몸이 거뜬해지고 병이 씻은듯이 사라진다고 하였다. 이렇듯 오랜 력사를 가진 온돌에는 우리 겨레의 고유한 생활방식과 미풍량속이 짙게 어려있다.

본사기자

4대명작무용의 하나

무용 《눈이 내린다》

무용 《눈이 내린다》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대원들의 불굴의 투쟁모습과 강의한 정신을 감동깊게 형상한 작품이다.

이 무용은 가요 《눈이 내린다》에 기초하여 주체56(1967)년에 창작되였다. 무용은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온갖 고난을 이겨내며 억세게 싸워나가는 항일의 녀투사의 투쟁모습을 형상하고있다.

작품은 세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여있다. 첫부분에서 항일무장투쟁의 이야기로 밤을 지새는 이 나라의 불밝은 집집마다에 소리없이 함박눈이 내린다. 무대는 이어 항일의 그나날로 바뀌여진다.

둘째부분에서 붉은 수건을 높이 추켜든 녀대원이 등장하자 눈송이정들이 그를 둘러싸고 설레인다. 눈송이정들이 휘몰아치는 률동으로 녀대원을 막아선다. 강의한 투쟁으로 눈보라를 물리쳤으나 녀대원은 그만 눈무지에 쓰러진다. 눈보라도 잦아들어 고요가 깃드는데 녀대원은 힘차게 일어나 붉은 수건을 휘날리며 신심드높이 앞으로 나아간다.

셋째부분에서 선렬들의 념원이 꽃핀 이 강산에 고요히 함박눈이 내린다. 무용은 눈내리는 고요한 밤에 항일전의 그 나날에 대한 이야기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서정세계를 현실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형식으로 펼쳐나가고있다.

무용 《눈이 내린다》는 무용률동이 우아하고 고상한것이 특징이다. 작품은 박력있고 긴장한 흐름으로 내용을 그려보이면서도 녀대원이 눈보라를 헤치며 전진하는 률동, 눈송이정들이 긴 수건을 우와 옆으로 부드럽게 날리는 팔동작 등 우아한 률동으로 일관시킴으로써 예술적품위를 돋구고있다.

무용은 극성이 강한것이 특징이다. 작품에서 매 세부들이 심오한 극성을 깔고있으며 주인공과 눈송이정들의 률동을 원쑤와의 피어린 싸움으로 상징화함으로써 강렬한 정서적흥분을 자아내고있다.

특히 마지막대목에서 눈내리는 불밝은 창가들을 형상한 대화폭은 오늘의 이 행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깊이 느끼도록 하면서 무용의 주제사상적과제를 훌륭하게 결속짓고있다. 사상성과 예술성이 훌륭히 결합된 무용 《눈이 내린다》는 우리 나라 4대명작무용들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1월의 절기

대한

대한은 소한과 립춘사이에 있는 절기로서 양력으로는 1월 20일~21일경이고 음력으로는 섣달(12월)에 있게 된다. 24절기는 립춘으로부터 시작되여 대한으로 끝나게 되므로 대한은 제일 마지막절기에 속한다.

대한은 한해치고 제일 추운 때라는 뜻이다.

겨울의 추위는 립동에서 시작하여 대한에 이르러 최고에 이른다고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소한이 있는 1월 5일경부터 대한이 있기 전인 1월 15일경까지가 가장 추우며 대한때에는 그리 춥지 않다. 그래서 《춥지 않은 소한 없고 추운 대한 없다.》, 《소한의 얼음 대한에 녹는다.》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이날 평양지방에서의 평균기온자료에 의하면 최저기온은 —13.2℃, 최고기온은 2.2℃이다. 대한절기에는 땅온도가 제일 낮을뿐아니라 땅이 제일 깊이 언다. 평양지방에서는 72㎝까지 언다.

올해의 대한은 1월 20일이다.

본사기자

아시는지요?

혈압과 TV

홍분은 혈압을 올린다. 홍분하지 않고 TV를 보자면 우선 TV순서를 골라서 보는것이 필요하다.

TV순서에서 체육경기와 같이 쉽게 홍분할수 있는것은 피하고 동물과 자연에 대한것, 예술공연과 같은것을 즐겨 보는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하는 경기는 보지 않고 후에 결과를 듣는 방법을 택할수도 있다. 혈압낮춤약을 먹은 후에는 TV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혈압이 높은 사람은 잠자기 전에 TV를 보지 않는것이 좋다. 왜냐하면 TV를 보면서 홍분한 대뇌가 진정될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기때문이다.

TV를 소리를 죽이고 볼수 있다. 방송원이나 해설원의 목소리나 관중의 응원소리는 홍분을 한층 더 높인다. 때문에 소리를 죽이고 음악을 들으며 TV를 보는것이 좋다.

본사기자

일부 지명들의 유래

— 《평양》

《평양》이라고 부른것은 고구려초기부터인데 그 뜻은 큰 성시를 의미한다. 본래 큰 성시를 당시 우리 말로는 《부루나》라고 불렀다. 그후 한문이 널리 글말로 쓰이게 되면서 《부루나》라는 부름이 《평양》이라고 불리우게 되였다. 평양을 《류경》이라고도 불렀는데 그것은 대동강을 따라 늘어선 능수버들이 평양의 특색있는 풍치라고 해서 부른것이다. 리조시기에 와서는 옛날 이름대로 다시 평양이라고 하였다.

— 《승호》

원래 《승호》는 오래전부터 널리 불리워온 고장이름인데 경치가 절승인 호수와 같은 여울목이 이 고장에 있는것과 관련된다. 옛날 외래침략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나라 군사들이 침략군의 공격을 물리치고 대승리를 이룩한 다음 호수같이 경치좋은 남강의 《합탄》여울가에서 쉬고갔는데 이때부터 이 고장을 《승호》라고 불렀다고 한다.

— 《력포》

《력포》라는 말은 검포리의 《검포》에서 유래된것인데 고구려때 한 장수가 우리 나라를 침략한 적장의 목을 베고 피묻은 검을 이곳 개울에서 씻은 일이 있었다. 그때부터 그 개울을 《검포》라고 하였고 검포를 낀 이 고장을 《검포리》라고 불러왔다. 그후 《칼 검》자가 획이 많다 하여 같은 뜻의 획이 적은 글자(칼 도)로 바꾸어 표시하였는데 그 과정에 《칼 도》자를 《힘 력》자로 잘못 옮겨 써서 결국 《력포》로 되였다.

— 《혜산》

《혜산》이란 이름은 압록강에서 큰물이 났을 때 사람들이 이곳의 산에 올라가 목숨을 구원했을뿐아니라 산에 있는 자원의 혜택으로 살아나간다는데서 유래된 말이다.

— 《원산》

고려시기 마늘처럼 둥근 산이라는 의미에서 《원산》이라 불렀다. 리조시기에는 《원산》 또는 《원산포》라 불렀는데 이것도 역시 마늘처럼 둥근 산을 낀 고장이라는 뜻의 이름이다.

본사기자

웃음

밥과 국맛

한 량반집에서 하녀가 무쇠가마를 팔아 사온 쌀과 구리를 팔아 사온 장으로 밥과 국을 끓였다.

주인마누라: 《이년아, 밥은 왜 이리 꼿꼿하고 국은 왜 이리도 시큼하냐?》

하녀: 《무쇠가마를 팔아 사온 쌀이 어찌 만문할수 있고 구리를 팔아 사온 장이 어찌 달수 있나이까?》

단편소설

아버지의 약속 (3)

글 량홍일, 그림 허은혁

《해연아, 아버진 골뱅이 가지러 가는게 아니란다.》

《그럼, 어데 가나?》

《아버진 이 땅에서 미국놈들을 몰아내려 간단다.》

딸애는 아버지의 말이 리해되지 않는다는듯 함뿍 물먹은 눈으로 경필을 바라보았다.

《그래, 미국놈들만 몰아내면 우리 해연이에게 맛있는거랑, 색동저고리랑 다 생긴단다.

아버지가 올 때에는 양코배기가 없는 땅에서 네가 살게 될게다. 그러니 울지 말고 기다려라. 응?》

마지못해 《응.》하고 머리를 까딱까딱거리며 눈물을 흘리던 사랑하는 딸 해연이, 살점을 저미는 아픔을 안고 《아버지, 빨리 와야해.》하며 떨어지기 아쉬워하는 그애를 이웃아주머니에게 맡기고 돌아서는 주경필의 두눈에서는 피가 흐르고있었다.

아, 해연아.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허지만 네가 다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머니를 잃는것과 같은 비극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는 이 길을 떠나는것이란다.

…그렇게 떠나온 길이 이제는 오십년이라는 세월로 멀어졌다. 아버지를 잃으면 절반고아이고 어머니를 잃으면 완전고아라는 말이 있다지만 해연아, 너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잃은 고아의 신세이니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느냐.

주경필의 눈가에는 고향의 동구길에서 돌아올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며 눈물을 짓고있을 어린 해연의 모습이 사라지질 않는다.

×

젊은이들과 바다에서 사흘밤을 보낸 주경필은 만선의 기쁨을 안고 포구로 돌아왔다.

《고문선장아바이, 앞서가는 동혁이를 보시라요. 집에서 기다리는 새색시때문에 제정신이 아닙니다.》

주경필은 고무장화발을 철썩거리며 다부진 몸매로 굴러가듯 걸어대는 청년의 어깨를 툭 친다.

《여보라구, 급할 땔수록 슬금슬금 봐가면서…》

《그러문요… 아, 저 친구들이…》

《하하하… 동혁이 알겠지?》

놀림에 든 청년은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문지르며 멋적게 웃었다.

《아바이, 언제 떠나십니까?》

《슬슬 봐가면서 때가 되면 가야지.》

《알리십시오. 우리 청년동맹에서도 기념품을 준비했답니다.》

《고맙네. 처보구 오금을 박으라구. 배가 돌아올 때에는 포구에 나와있으라구 말이네.》

《창피하다면서…》

《허— 어— 그건 속에 없는 소릴세. 배사람이라는게 대가 없다구야.》

주경필이 집마당에 들어서니 토방에 앉아 왕골부채질을 하던 김성각이 벌떡 일어선다.

《이 사람 성각이, 왔네그려!》

《형님!…》

전쟁이라는 준엄했던 싸움터에서 우정을 맺은 두사람이 손을 마주잡고 어린애들처럼 빙빙 돌아가는 모습을 보던 한순녀가 벼르고있었는지 물었다.

《여보 령감, 가져오마한 생물은 어데 있수?》

주경필이 《아뿔싸, 내가 그걸 감감 잊고있었구만.》하고 무릎을 치자 《서른소리 할 때부터 까먹던 버릇을 일흔고개 넘기도록 못고치니 쯧쯧…》하며 한순녀가 부엌으로 들어간다.

《허— 내 저 입심에 노상 몸살일세.》

부엌에서 한순녀의 목소리가 날아온다.

《술상이 먼저나요? 밥상이 먼저나요?》

김성각이 목을 뽑으며 호기있게 대답한다.

《형수님, 순서를 삭갈려도 분수가 있지. 그야 응당 술상이지요.》

《에이구, 남정네들은 좋겠수다. 술술 넘어가는건 그리도 좋아들 하시니.》

주경필은 바다바람에 풍화된 바위같은 얼굴을 두손으로 쓸어내며 웃기만했다.

한순녀가 초물자리를 깐 마루에 술상을 차려놓고 잔에 술을 부었다.

《형님, 난 며칠후에 내려오자구 했는데 아, 글쎄 어제 아침에 중대장이 나타나질 않았겠소.

〈하사 김성각, 동문 아직도 대동강에 나가 낚시질을 하면서 제집 바닥에서 딩굴고있는가. 그래 며칠동안 대동강에 나가지 못하면 동무한테 걸릴 고기들이 다른데로 달아날가봐 걱정이야. 명령을 받은게 언제야?〉 하구 을러메는데 이건 꼭 까투리를 본 매였수다. 그래서 천방지축으로 달려왔지요.》

《중대장동진 잘 있나?》

《날이 갈수록 기가 더 펄펄해집니다. 어디서 찾아내고 들춰냈는지 평양서 살고있는 우리 중대출신 여섯명이 명절날마다 그 집에 모여앉군 합니다.》

김성각이 거수경례까지 하고 익살을 부리는통에 한순녀가 그의 어깨를 주먹으로 두드리며 웃어댔다.

《중대장동지가 나를 역까지 나와 바랬수다. 〈성각이, 자네 중대의 막내니 어찌겠나. 어서가 고집불통 경필이를 데려오게. 하루한시가 급하도록 보구싶어. 내 나이 몇인가, 기다리다 만나지 못하고 덜컥하면 어찌겠나.〉

그 말을 들으니 우리모두가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요. 내 딸 해연이도 이제는 쉰하고도 세살은 더 넘겼으니…》라고 말하며 한순녀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여보, 로친네 우는게 아니요? 허허, 성각이 내 임자수에 넘어서 미닫이를 사이에 두고 우리 로친과 밤밝힌 일이 생각나나?》

《하하, 기막힌 상봉이였지요.》

《에이구, 그것만은 아직 모르겠수다. 속히웠는지 아니면 같이 짜구서 한 놀음인지.》

한순녀의 대답에 주경필이와 김성각은 목소리를 합쳐 2중창이나 하듯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50-0732, 편집국 350-0522 편집위원회